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사업 실천방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 성천*

- I. 서론
- II. 사회사업실천의 대상이 되는 빈곤문제의 범주
- III. 빈곤에 대한 기존 사회사업 접근법의 문제점
- IV. 대안적 사회사업 실천모델의 모색
- V.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사업 실천방법의 모색
- VI. 결론

I. 서론

사회사업의 역사적 기원과 발달과정은 빈곤문제의 해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사업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직으로 인식되어 있고, 현재에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관과 읍·면·동에서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기존 활동이 우리나라의 빈민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양한 빈민운동가들이 지역운동이나 사회행동 등을 통해 빈민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기여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빈곤문제가 개인적이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여 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사업이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의 해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빈곤문제 해결에 적용되는 사회사업 실천방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음의 몇가지 전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사회사업 실천방법의 개념은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사업의 전문적 방법과 기술”이다. 사회사업 실천방법은 개입대상에 따라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실천(micro practice)과 지역사회와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실천(macro practice)으로 분류되며, 접근법의 특성에 따라 임상사회사업, 급진사회사업, 통합사회사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둘째, 사회사업 실천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빈곤문제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그리고 객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으로 그 성격을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¹⁾ 사회사업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규정하는 시각이 “상황 속의 인간”이라고 볼 때 빈곤의 다양한 측면들은 모두 사회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사회사업에서 빈곤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빈곤대책의 접근법은 달라질 것이고 그 효과성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사업 실천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에서 찾고자 하는 접근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²⁾, 이러한 방법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그 나라의 빈곤정책과 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그 활동의 성격이 크게 영향받고 사회사업 실천방법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빈곤정책과 기관 프로그램의 적절한 뒷받침이 있어야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사업 실천방법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관계는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시도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회사업 실천방법을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시론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으로 구성된다.

(1) 사회사업 실천방법이 다루어야 하는 빈곤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실천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2)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사업 실천모델을 모색한다. (3) 선택된 사회사업 실천모델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빈곤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과 프로그램을 탐색적으로 모색한

1) 조홍식(1996), “한국 빈곤문제의 원인 규명”,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49-50.

2) 김성천(1995), “한국에 적용된 사회사업 실천이론의 연구동향에 관한 비판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pp.50-55.

다. 이러한 연구의 분석대상은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로 그 범위를 국한하였다.

II. 사회사업실천의 대상이 되는 빈곤문제의 범주

1. 빈곤의 특성과 사회사업실천의 접근방향

일반적으로 빈곤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은 일정수준의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을 말하고, 사회적 빈곤은 빈곤층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그들 나름대로 독특하게 발전시키는 빈곤문화와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심리적 빈곤은 빈민이 갖게 되는 각종 심리상태를 말하는데, 모든 일에 숙명적이고 운명적이며, 인지구조의 불안 등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세가지 빈곤의 측면은 어느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따질 수 없으며, 서로 순환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

또한 빈곤은 객관적이고 동시에 주관적인 현상이다. 객관적으로는 기본적 욕구를 달성하는데 소득이 적다는 것이고, 주관적으로는 자신의 무능력이 욕구와 기대충족에 못미쳐 풍족한 생활양식과는 동떨어진 차별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는 빈곤문제는 빈민들의 물질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가치, 태도 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표면적으로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가족역기능문제, 심리적 문제, 사회관계의 문제가 항상 뒤얽혀 있는 것이다. 또 빈곤문제는 개인의 심리적인 것에서부터 문화와 인간관계, 계층이나 계급구조, 정치행정적인 요소, 사회변동의 형태와 속도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에 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⁴⁾ 따라서 빈곤에 대한 대책을 빈곤의 어느 한 면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접근하는 것은 비효과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Morales와 Sheafor는 “사회복지사는 인간과 환경영역의 어느 독립된 영역에서도 전문가가 아니며, 두 개의 공유영역에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원조해 나가는 전문가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⁵⁾ 이 정의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면 빈민을 위한 사회사업대책은 당연히 “상황 속의 빈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것은

3) 조홍식(1996), “전계 논문”, p.49.

4) 현외성(1994), “빈곤대책의 전환과 사회복지관의 역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관협회, p. 17.

5) 김용일 외(1995), 「사회사업실천론」, 나남, p. 60.

상황과 인간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빈민과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입없는 경제적인 급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물질적인 원조없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입은 그 만남부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체험들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을 잘 보여 준 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민의 개인적인 요인과 빈민이 처해 있는 사회구조적 환경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상태에서 빈곤문제의 원인이 파악되고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빈곤대책은 주로 빈민의 경제문제에 초점을 둔 대책들이었고⁶⁾, 빈곤의 원인으로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무시하고 빈곤문제의 해결을 개인과 가족에게서 기대함으로써 빈곤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이고 비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2. 빈곤문제 성격의 변화와 사회사업 실천방법

우리나라의 과거 30년간(1960-1990)의 빈곤율의 추이를 보면 (1) 절대빈곤율이 높았던 60년대 초반까지의 보편적 빈곤시대, (2) 70년대 초-중반까지의 빈곤율 급락기, (3) 상대적 빈곤율 상승기와 절대 빈곤율 감소 또는 둔화기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는 아직도 10%전후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절대빈곤율을 더욱 감소시켜야 하는 것과 오히려 완만한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빈곤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율(20-30%로 추정)을 적정수준인, 자연빈곤율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주요 빈곤대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⁷⁾

이와 같이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경제성장기의 빈곤성격은 주로 국민 대다수가 겪었던 물질적 재화의 부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물질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이 시대의 빈곤은 상대적 빈곤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빈곤과 심리적 빈곤의 문제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의 20-30%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층은 빈부의 격차로 인해 심한 사회적 위화감과 같은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의 결핍감, 문화적 재화에 대한 접근의 부족, 자아실현의 어려움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의 결핍이 쟁점이 되고 있

6) 빈곤문제의 연구대상은 주로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절대 빈곤층이나 영세민이었고 그 대응책은 빈민의 경제문제와 환경적 문제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적·행정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김수환(1986), “빈곤가족치료를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8.

7) 박순일(1994),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pp. 97-98. 여기서 절대빈곤의 기준은 보사부의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기준이고, 상대빈곤의 기준은 전도시 가구 지출의 50%-60%로 보고 있다.

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지존파와 막가파의 등장은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사업실천의 대상은 절대적 빈민의 문제와 함께 상대적 빈민들이 갖게되는 박탈감, 소외감, 무력감, 운명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심리적 문제와 최근에 서서히 감지되지 시작한 빈곤문화도 해결의 주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⁸⁾ 따라서 과거의 사회사업실천방법이 빈민의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빈곤문화의 타파, 그리고 빈민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실천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빈곤에 대한 기존 사회사업 접근법의 문제점

1. 빈곤문제에 대한 기존 사회사업 실천 프로그램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가 빈곤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장은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빈곤문제 대응방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사회사업 실천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1) 사회복지관의 대빈곤 프로그램의 문제점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설립 목표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관은 그 성격상 지역성에 기초하여 다목적적인 사업을 전문적으로 전개해야 하고, 다양한 ‘방법’의 도입이 필요불가결하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기능이 중시되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일하는 것이 주임무로 인식되고 있다.⁹⁾

그러나 사회복지관은 재정적 문제 등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8)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빈곤문화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아직 빈곤문화의 존재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고 있지만,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과 같은 빈민밀집 지역에서 빈곤문화의 특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을 보면 한국의 빈곤문제에 빈곤문화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한북연출판부, pp. 82-93.

9) 보건복지부(1997), 「1997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 p.5.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그 대상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빈곤가정이나 저소득계층의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적고, 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빈민이 아닌 지역주민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¹⁰⁾ 또한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며, 서비스의 질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전문성도 미약하고, 자원의 연결 및 조정의 기능과 예방기능이 매우 미약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¹¹⁾ 따라서 현상황에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상황이다.

2) 사회복지 전문요원체도의 문제점

현재 읍·면·동과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약 3000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경우 개입의 대상이 생활보호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는 빈민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관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대인복지서비스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¹²⁾ 그러나 1992년에 수행된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86%가 법적으로 규정된 생활보호의 업무외의 일반행정업무나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겸임하고 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량의 57.4%만이 생활보호업무에 할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그 외에 과도한 대상자, 상담실의 부재, 전문성을 살리기 힘든 근무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본연의 전문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생활보호대상자의 문제를 사회사업 실천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활동사례집에 의하면 이들은 현재 생활보호법에 입각한 프로그램과의 연결, 상담·지도 등을 통한 요보호대상자의 역량강화 및 의식과 태도의 변화, 지역내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의 활용 및 연계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전문요원 활동의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어서 큰 기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 본 양 제도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첫째로 양

10) 1992년도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관의 계층별 이용자 중 일반이용자가 50.2%, 기타 저소득계층이 36.5%, 생활보호대상자는 13.3%로 일반이용자가 높게 나타났다. 조남범 외(1992), 「사회복지관 현황 조사보고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1) 조홍식(1996), “빈곤세습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관과 정부의 역할”, 제 6회 사회복지관 세미나 자료집, 한국사회복지관협회, p. 15.
12) 윤혜미(199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수행 실태”, 제 1회 사회복지전문요원 연찬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0.
13) 강혜규, 박경숙(1992), 「사회복지사무소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보건사회부(1991), 「사회복지전문요원 활동사례집」.

제도간에 연계·조정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효과를 놓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없고 일회적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다. 셋째,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빈곤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전문성이 부족하여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사회사업 실천방법은 빈곤의 요인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고 접근하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가족치료에 관련된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빈곤의 요인을 사회적인 것으로 보고 접근하는 지역사회조직, 사회행동 등의 방법은 미미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요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사업 실천방법은 개별사회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상담실이 없고 대상수가 많아 전문적인 관계의 형성이나 개입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본래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체도가 목표로 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전문요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조직이나 사회행동의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 빈곤문제에 대한 기존 전통적 사회사업 실천방법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사회사업 실천방법에 대한 교과명과 각종 사회사업 실천방법에 관한 워크숍의 훈련주제는 사회사업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실천방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37개 대학의 교과과정 자료(전공필수과목)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대학이(전체 분석대상대학의 94.6%) 전공필수로 지정한 과목은 개별사회사업방법론과 사회사업실습이다. 그 다음으로는 집단사회사업방법론과 사회복지정책으로 각각 81.1%의 대학에서 전필지정을 하였으며, 다음은 사회복지조사방법론(73.0%), 지역사회조직론(70.3%), 사회복지개론(62.2%)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⁵⁾ 이렇게 전통적인 사회사업실천방법론 세 과목과 아직은 대인서비스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습과목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필로 지정된다는 것은 대학들이 미시접근중심의 실천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사회사업 실천방법의 교육은 70년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통적인 분류인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론의 과목에 입각하여 교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사회사업 실천방법의 주도적 모델로 소개되고

15) 김연옥, 오정수, 최해경(1997), "한국의 사회복지 교과과정", 한국사회복지(사회사업) 대학협의회 연찬회 자료집, p. 115.

있는 통합사회사업방법(13.5%)은 극소수의 대학에서만 강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이것을 보면 사회사업 실천방법에 대한 교육은 아직 전통적 사회사업모델¹⁷⁾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를 재훈련시키기 위한 각종 워크숍 프로그램은 주로 가족치료나 미시적인 임상사회사업 치료기법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전문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개별치료나 가족치료의 전문가들이지 지역사회조직이나 사회복지행정의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조직방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도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통적 사회사업모델은 클라이언트 문제의 사회·환경적 맥락을 도외시하고 개인에게서 찾고 자하는 심리학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정치적 함의들에 대해 관심이 없고 빈곤의 원인을 사정할 때 개인의 부적응과 병리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변화를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 또한 전통적 사회사업 실천방법은 사회사업의 대상 중 미시분야에 해당하는 개인, 가족, 그리고 소집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환경적인 개입보다는 의료모델에 입각하여 빈민을 상담이나 치료적인 개입방법을 통해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¹⁸⁾

이처럼 전통적 사회사업모델은 빈곤문제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경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Midgley는 빈곤가족의 문제가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조직, 정부의 정책 등과 같은 거시적 체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상사회사업에서는 빈곤문제를 개인적·가족적 부적응의 문제로 보아서 인간상호관계의 문제, 감정적 어려움의 해결, 자아의 개선 등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¹⁹⁾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큰 줄기가 1980년대까지 경제적 결핍의 문제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전통적 사회사업 실천방법으로는 빈민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것이 기반이 안된 상태에서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입도 기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16) “상계 논문”, p. 114.

17) 여기서 전통적 사회사업모델은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사업, 가족치료 등의 방법으로 그 대상은 개인과 가족 및 집단의 미시체계가 되고, 클라이언트 체계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에서 해결하고자 한 모델을 말한다. 이의 대표적인 모델로 심리사회모델, 기능모델, 위기개입모델, 인지행동모델 등을 들 수 있다.

18) R. Dorfman, 임상사회사업연구회 역(1991), 「임상사회사업기술론」, 홍익재, p. 40.

19) J. Midgley, 복지연구회 역(1984), 「제 3세계의 사회사업」, 한복연출판부, p. 134.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하는 전통적 사회사업모델로 빈곤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부적절했고, 앞으로도 부적절할 것이며, 특히 10%에 달하는 절대적 빈곤층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사회사업 실천모델의 특성 탓인지, 전통적 사회사업은 점점 빈곤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Walz와 Craft는 (1)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주창자(advocator)로서 역할이 감소하였고, 전문직의 핵심 기능으로 빈자에 대한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고, (2) 개인 개업(private practice)이 증가하였고, 치료적 개입이 주도적 개입유형으로 부각되는 경향을 보고하면서 사회사업의 대상이 빈민에서 중산층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지적하였다.²⁰⁾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미래의 사회사업을 예측한 Walz와 Groze는 (1)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사회사업은 후기산업사회의 빈민에게 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2) 자유시장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주 고객이 될 것이고, (3) 사회복지사는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²¹⁾ 그리고 사회사업에서 빈곤의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현상을 이들은 “사회사업 임무의 변화”에서 찾으면서, 최근 사회복지사의 계층이 “중간 계급화”되면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대상으로 빈자보다는 중산류층의 가족문제를 더 선호하게 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가족기관과 정신보건센터, 민간기관에서 사용되는 가족치료는 고학력과 부자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대학원을 졸업한 미국의 여성 사회사업가들의 대부분은 임상경력을 추구하며, 중산층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고, 자신의 보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한다.²²⁾ 우리나라 사회사업실천에서도 최근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특성들에 입각하면, 전통적 사회사업실천방법은 빈민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과 심리적인 요인에 국한하여 접근하고, 빈곤의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계를 갖고 있고, 점점 빈곤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20) Thomas Walz, Victor Groze(1991), "The Mission of Social Work Revisited: An Agenda for the 1990s", *Journal of Social Work*, v.36, n.6, p. 500.

21) Ibid., p.502.

22) Ibid., pp. 502-503.

IV. 대안적 사회사업실천 모델의 모색

기존의 사회사업모델 중에서 전통적 사회사업실천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로 임상적 행동주의자 모델, 자유주의적 급진모델, 통합사회사업모델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임상적 행동주의자 모델

전통적 사회사업모델의 대안으로 Walz와 Groze는 사회조사와 주창(advocacy)의 기법을 중시하는 “임상적 행동주의자 모델 clinical activist model”을 주장하고 있다.²³⁾ 임상적 행동주의자 모델이 기존의 전통적 사회사업모델과 다른 점은 (1) 문제의 사회적 인과요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그러한 원인들을 고치는데 강조점을 두며, (2) 임상사회복지사가 임상적 조사를 중시하고 참여적 조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3) 억압받고 가장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원들을 제공하기 위해 주창기법을 잘 활용해야 하고, (4)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영향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5) 사회사업대학에서는 보다 행동지향적인 학생집단을 모집할 필요가 있고, (6)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빈민과 동일시하는 사람과 사회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다.²⁴⁾

만일 기존의 전통적 사회사업모델이 이러한 특성을 지닌 임상적 행동주의자 모델로 변화한다면 전통적 사회사업이 추구하는 미시적 개입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빈민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거시적 개입방법인 사회행동과 사회개혁을 간과하지 않음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보다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자유주의적 급진주의 (Liberal radicalism) 사회사업모델

급진사회사업은 1970년대에 영국에서 발원하여, 빈곤에 대한 투쟁과 사회개혁적 방법에 뿌리를 둔 모델로²⁵⁾ 전통적 사회사업과는 반대로 빈곤문제를 사회경제적 제도의 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급진사회사업모델은 자본주의구조의 타파를 주장하는 좌파급진모델과

23) Ibid., p. 502.

24) Ibid, pp. 502-503.

25) 김영모(1992), 「사회복지학」, 한복연출판부, p. 35.

자본주의구조는 인정하면서 인간의 의식변화를 통한 사회행동화로 사회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급진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좌파 급진주의자들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존립기반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에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자유주의적 급진주의모델²⁶⁾은 자본주의 사회경제구조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기존의 사회사업과는 달리 사회, 경제적 구조와의 연관속에서 사회사업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급진적(radical)'이라고 자칭하나 그들의 연구와 실천의 준거개념은 좌파 급진주의 모델이 강조하는 계급이나 정당이 아니라 "평등원칙" 등 체제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급진주의 모델은 목적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한정된 사회변화와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²⁷⁾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인간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의식화된 사람들을 조직하여 빈곤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행동의 방법을 선호한다.

자유주의적 급진주의모델이 자본주의의 기본구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는 비판도 받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사업 실천방법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보완하고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설 자리를 잃은 좌파 급진주의모델에 비해 자유주의적 급진모델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사업실천의 한 모델로 인정받고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적 급진주의 사회사업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전체 사회의 맥락 속에서 고찰하고 사회구조를 변혁시킴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사용한다.²⁸⁾

(1) 교육: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 대한 억압, 그리고 이러한 억압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잠재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이 실천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

(2) 개인과 사회체계간의 연결: 인간과 그 환경내 다양한 체계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개인과 그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들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존 제도내,외에서 노조와 압력집단과 같은 대항 체계들을 연계하여 주는 것이다.

(3) 대항적 체계들의 수립: 기존 체계들의 내부 혹은 외부에 대항적 체계(counter-systems)들

26) 김종해 외(1991), "진보적 사회사업실천의 방향성 모색, Radical Social Work을 중심으로", 「성심여대 사회과학연구」, p. 109.

27) "상계 논문", pp. 109-110.

28) "상계 논문", pp. 120-121.

을 수립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수립의 목적은 기존 체계의 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4) 개인적·구조적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① 대화를 통한 의식화 과정을 중시하고, ② 집단적 의식화와 집단행동을 도모하며, ③ 다른 제도와 조직과 효과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조직적·행정적·기획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힘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급진주의 사회사업 실천방법은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실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실천모델을 알기 어렵다. 오히려 종교인이나 지역운동가들에 의한 도시빈민운동과 지역운동 등의 분야에서 이 급진주의 모델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⁹⁾ 따라서 한 연구³⁰⁾에서 제시한 도시빈민운동의 조직화와 전개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자유주의적 급진주의 사회사업 실천방법의 한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모델이 태동한 서구사회에서도 급진주의 사회사업모델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로 물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개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구체적인 전문적 실천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980대를 기점으로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 사회사업실천의 주도적 모델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사회사업계에서는 발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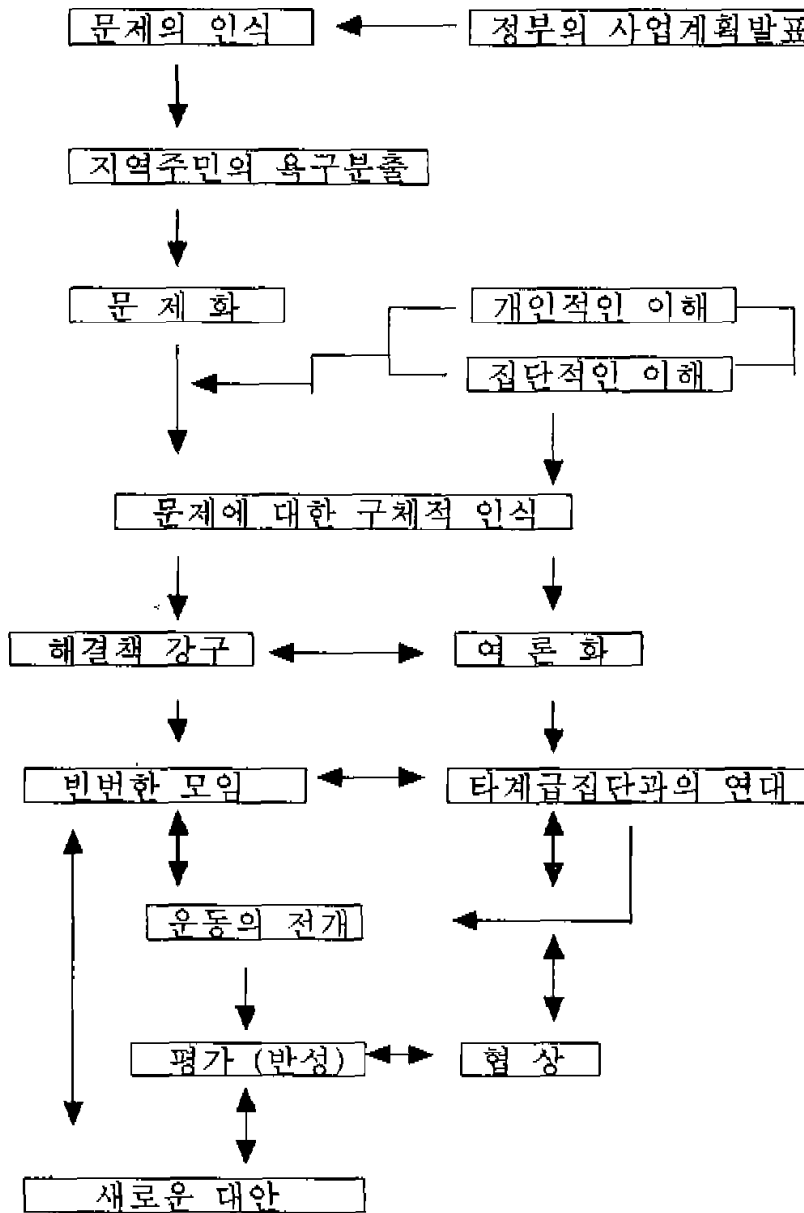
그러나 전통적 사회사업 실천방법이 빈곤문제의 사회구조적 측면을 경시한 한계를 급진사회사업이 잘 지적해 주고 대안을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사업이 갈수록 사회운동과 대변(advocacy)의 기법을 도외시하고 빈곤과 불평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는 시점에서 급진사회사업 실천모델은 빈곤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29) 이러한 운동사례를 소개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1990), 「도시주민지역운동」, 한울.
- ② 김영석(1985), 「도시빈민론」, 아침.
- ③ 황미영(1990), “도시빈민의 지역사회조직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④ 이동춘(1990),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서의 도시빈민운동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⑤ 도시빈민연구소(1991), 「굴레를 깨고 일어서는 사람들 - (빈민)지역운동 사례집」, 도시빈민연구소.
- ⑥ 도시빈민연구소(1989), 「도시빈민지역운동론」, 제 3차 월례토론회 자료집, 도시빈민연구소.
- ⑦ 도시빈민연구소(1990), 「전·월세 문제와 세입자 운동」, 제 8차 월례토론회자료집, 도시빈민연구소.
- ⑧ 도시빈민연구소(1990), 「빈민관련 복지정책의 비판적 이해와 대응 - 사회복지전문요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제 14차 월례토론회 자료집, 도시빈민연구소.

30) 이동춘(1990),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서의 도시빈민운동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p.68.

<그림 1> 도시빈민운동의 조직화와 전개과정



자유주의적 급진주의 사회사업모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실천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사회 전반을 휩쓴 급진주의 사조도 사회사업실천의 분야를 비껴 나갔다. 이것은 한국 사회사업 실천의 성격이 사회개혁적인 사회운동보다는 체제에 부적응하는 자를 개별적으로 적응시키는데 보다 관심을 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참여연대의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사회사업실천계는 아니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주체들의 활발한 지역운동이나 빈민사회운동의 효과성을 볼 때,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합법적 활동을 통해 사회개혁을 도모하는 사회

복지운동은 자유주의적 급진주의 실천모델에 접목되어 충분히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회사업실천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던 사회행동이나 대변의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는 자유주의적 급진사회사업모델은 이제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사업 실천모델로 적극 소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통합사회사업 모델

통합사회사업모델은 기존 사회사업모델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나타났는데 그 중에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성격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합적 접근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성격에 따라 효과적인 접근법을 질적으로 활용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문제해결방법을 강조함으로써³¹⁾ 심리내적인 면을 강조하는 정신역동이론으로부터 사회와 문화, 즉 상황 속의 인간(person in situation)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체계이론이나 생태체계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과 지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통합사회사업방법론의 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³²⁾,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모델 중에 하나가 체계이론과 생태학적 관점에 기반을 둔 체계지향적인 방법(The System-Oriented Methods)에 의해 모색된 통합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델은 Pincus와 Minahan, Siporin, Goldstein 등이 나름대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Pincus와 Minahan이 제시한 체계이론에 입각한 접근법은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실천에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활용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체계를 변화매개체계, 클라이언트체계, 표적체계, 행동체계의 4가지 체계로 보았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둬으로써 인간과 사회환경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사업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의 문제해결 및 처리능력을 향상시킨다. (2) 사람들을 자원, 서비스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들과 연결시킨다. (3) 그런 체계들의 효과적이며 인도적인 운영을 증진시킨다. (4) 사회정책의 개발과 개선에 공헌한다. 이러한 사회사업의 기능은 빈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빈곤의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포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합방법론이 전통적 사회사업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H.Specht는 전통적인 사회사업방법들이 통합되면 사회복지사가 전통적으로 실행하였던 진단, 치료,

31) H. Goldstein(1981), *Generalist Social Services*, U.S.A., Prentice Hall, Inc., p. 413.

32) *Ibid.*, pp.420-424

평가하는 방법의 선택이 변화될 것이고 실무에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제로 통합방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실천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 전문적 방법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철학적 시각이나 개입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³³⁾ 한 예로 문제해결 통합방법모델을 제시한 Compton과 Galaway의 문제해결모델의 기법을 보면³⁴⁾ 전통적인 심리사회모델의 기법과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전통적 사회사업 실천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세가지의 모델에 대해 살펴 보았다.

임상 행동주의자 모델은 사회사업실천방법이 어느 한 면으로는 기존의 심리치료모델에 입각한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임상사회복지사들이 빈곤문제에 관심을 갖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임상사회사업의 기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 연구되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상사회복지사들은 현실적으로 빈곤문제를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빈곤문제를 주로 다루는 사회복지관이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임상사회복지사일 필요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시각이 미시적 대상에 국한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인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적 급진모델은 빈민들의 공통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실천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거의 없었지만 도시주민지역운동으로서 빈민지역운동, 공해추방운동 등의 사례들을 보면³⁵⁾ 이 모델의 유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거시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운동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미시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약하여 빈곤의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면만 보완될 수 있다면 아직 30-4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절대적, 상대적 빈곤층의 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 주택문제, 탁아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자유주의적 급진모델은 사회사업실천에 적극 적용될 필요가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모델의 경우, 이론적인 틀은 빈곤문제의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중 어느

33) H. Specht & A. Vickery(1977), *Integrating Social Work Methods*, London, George Allen & Unwin, p. 28.

34) 이들이 제시한 실천기법은 다음과 같다. (1) 격려. (2)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의 증진: 의역, 명료화와 성찰, 지각점검과 초점화, 요약과 해석, 정보제공, 행동, 직면, 관계. (3)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인식의 증진 (4) 사회화를 통한 효과적인 역할 수행: 적극적인 자원의 공급, 직접적 개입, 행동. (5) 역할전환 또는 역할 상실의 처리. (6) 역할수행의 지지. (7) 자원으로써 사회기관의 활용. B.R. Compton & B. Galaway(1986), *Social Work Process*, 장인협, 정영순 번역, 「사회복지방법론」, 수문사, pp. 243-259.

35) 숭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1990), 「도시주민 지역운동」, 한울.

편에 치우침이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줌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심리사회주의 모델도 형식적인 이론의 틀은 인간과 환경을 똑같이 중시하였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실천방법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무력하였듯이, 통합모델도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빈곤문제 해결에 필요한 가용자원을 동원하는데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전통적 사회사업의 한계를 그대로 지닐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사업실천모델로 빈곤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사회사업모델이 기초가 되고, 이에 기반하여 급진적 자유주의 모델의 방법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통합사회사업모델이 빈곤의 문제에 접근하는 형식적인 틀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나 환경적인 면의 개혁에 실천성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점을 자유주의적 급진주의 모델이 접목되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V.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사업 실천방법의 모색

본 연구에서 빈곤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규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회사업 실천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사업 실천방법의 모색

빈민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절한 자원을 연결하여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중개자(broker)로서의 역할과 기법은 중요하다. 중개자로서 사회복지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빈민들에게 다양한 자원체계들을 제공하여 줄 것인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빈민에게 연계하여 줄 수 있는 자원체계는 공식적인 자원체계, 비공식적·자연적 자원체계, 사회자원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³⁶⁾ 이러한 자원체계에는 빈민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지만 빈민들은 여러 문제로 인해 이러한 자원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자원체계

36) 이러한 분류는 핀커스와 미나한의 분류를 따른 것이다. (1) 공식적 자원체계: 노동조합, 사회복지사회, 학부협회, 소비자보호협회 (2) 비공식적·자연적 자원체계: 가족, 친구, 이웃, 동료. (3) 사회자원체계: 사회보장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병원, 법률상담소, 직업훈련원, 학교, 경찰서, 시청. A. Pincus & A.Minahan, Social Work Practice(1980), 문인숙외 (역), 「사회사업방법론」, 보진제출판사, pp. 2-4.

들이 빈민을 돕는데 부적절한 기능을 할 수도 있다.³⁷⁾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비단 자원을 발굴하여 제공하여 주는 역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원을 빈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³⁸⁾ 즉 중개자로서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자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자원의 수요자와 제공자의 문제점까지 찾아내어 개선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때로는 빈민을 교육하거나 의식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며, 사회행동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성도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빈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사업실천에서 활용되는 자원체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주로 자원봉사자의 활용, 금전적 도움을 주는 후원자의 개발, 타기관에 의뢰 등으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어느정도는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도시인의 약 40%가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시민들이 가구당 평균 4천원정도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헌금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³⁹⁾ 또한 자원봉사인력도 도시인의 6할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 학생과 직장인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사회복지(모금)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인력도 풍부하다. 최근 지방선거로 많은 의회의원이 배출되었고 지방경제의 발달로 기업인 및 금융인이 많아졌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별정직 사회복지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⁴⁰⁾ 또한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공동모금도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자원⁴¹⁾을 잘 알아야 하는데,

37) 빈민의 사회망(social network)은 충분치 않으며 특히 사회사업의 주 대상인 빈자들에게 매우 제한되어 있다. 빈곤문제를 지닌 가족들은 외부세계와 접촉이 전혀 없고, 친구와의 관계가 약하거나 없으며 종교 기관, 학교, 보건소와 같은 체계와 접촉이 두려워서 피한다. 또한 빈민들은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용한 자원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양자가 서비스를 주고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홍보를 하지 않는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이를 알고도 여러 이유로 인해 그 기관 이용을 주저하는 주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Gail K. Auslander, Howard Litwin(1988), "Social Networks and the Poor, Toward Effective Policy and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1988, v.33, n.3, p. 235.

38) A.Minahan(1980), 「전계서」, pp. 19-21.

39)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한복연 출판부, pp. 164-168.

40) 김영모(1995),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과제와 방향", p.3.

41) 지역사회의 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그리고 내적자원과 외부자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은 그 지역사회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정부와 다른 지역사회의 자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김영모(1990), 「전계서」, 한복연 출판부, p. 156.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의 기관장, 정치인, 종교인, 교육자 등의 인적자원 동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자원을 동원함에 있어서 이들의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⁴²⁾ 따라서 이들이 사회복지와 빈민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홍보와 교육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빈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사회망에는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빈민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호부조의 자원도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의 사정은 가난한 사람이 잘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빈민들의 사회망내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과 거동불편자의 경우에는 그 이웃의 보살핌이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Gail K. Auslander, Howard Litwin은 빈자의 사회망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관계망의 이동을 통해 빈자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만 그렇다고 빈자에 대한 모든 사회망 개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⁴³⁾ 예를 들어 공식적인 원조와 함께 가족, 이웃 등이 제공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원조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빈민들의 동류의식과 공통된 이해관계는 그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가 경제적 측면에서 빈곤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다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빈곤에 관련된 법이나 정책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고 그 개선방법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사회행동이나 주창기법을 통하여 사회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빈곤 투쟁의 사회사업 역사 초기를 보면 빈자를 위한 사회행동에 사회사업가가 많은 헌신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사업이 빈곤문제에 관심을 덜 갖게 되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행동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갖는다고 한다.⁴⁴⁾ 우리나라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사회행동방법은 지역사회조직 과목의 교재에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만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적 대응을 통한 사회복지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42) 한 예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결연사업, 반찬서비스, 바자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동장 등의 기관장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매우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나 사회복지를 시혜, 자선사업이라는 인식을 지닌 기관장의 경우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허가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43) Auslander, Howard Litwin(1988), Op, Cit., p. 237.

44) 보다 최근에 사회행동에 대한 옹호자들이나 반대자들은 사회변화의 전략이 전문적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적 행동에 의존해야 하는지; 사회사업이 대부분의 시간과 자원을 빈자에게 집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계급에게 집중해야 하는지; 사회사업이 클라이언트가 기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변화에 초점을 두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Linda Cherrey Reeser & Irwin Epstei(1987), " Social Workers' Attitudes toward Poverty and Social Action: 1968-1984", in Social Service Review; 1987, 61, 4, p. 610.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사업실천의 분야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사회운동의 방법이 활성화된 경우를 찾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가 사회사업 실천방법을 통하여 빈곤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⁴⁵⁾ 사회행동과 사회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사업 실천방법이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⁴⁶⁾ 이러한 방향전환을 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과업과 역할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⁴⁷⁾, 무엇보다도 한국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기법은 사회행동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사업계에서는 사회행동방법이 매우 미약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 '지역사회복지협의회'⁴⁸⁾와 같은 조직이 결성되어 쟁점에 대한 사회행동방법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방안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 지역의 문제를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러한 협의회 조직이 당장 결성되기 어렵다면 기존의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사업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나 경실련의 한 행동분과로 사회사업분과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방안이다. 또한 협조 가능한 노조들과의 연대가능성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지역에 비공식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각종 지역운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자생적인 지역운동은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사회행동의 전략을 갖고 있으나 이들은 인간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는 매우 취약한 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운동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새로운 한국적인 모델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도시빈민 지역활동에 참여하여 고무자와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보고가 있

45) 현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주체가 된 사회복지운동(사회행동)의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인재 (1995),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실천가의 사회적 위상에 관한 연구", 제 26호, p.204.

46) 다음의 글은 지역사회차원에서 사회복지운동을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가 개인이나 가족 등과 같은 소규모 사회단위의 사회적 적응문제를 중시하면서 임상적 접근법을 발전시킴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존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위한 정치지향적이고 체제변화 지향적인 사회복지운동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회복지전문가 혹은 사회행동(social action)적 지역사회조직 전문가의 역할은 사회복지운동의 조직화 과정에서 중요한 몫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다".(출처 : 감정기, "지방자치제의 지역사회복지적 의미와 지역운동적 접근",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실제」 장인협박사 정년기념논문집, 1990, p. 514.). 이인재, '상계논문'에서 재인용.

47) Pincus & A.Minahan, 「전계서」, pp. 32-33.

48) 김영모(1995),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과제와 방향", 「지역사회복지운동」, 창간호, p. 4.

다.49) 끝으로, 대학교육과 각종 훈련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조직방법과 사회행동의 방법을 교육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업)대학협의회를 포함하는 전문적인 조직체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행동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2. 사회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사업 실천방법의 모색

사회적 빈곤은 빈곤층의 사회, 문화적 성격을 그들 나름대로 독특하게 발전시키는 행위 양식, 즉 빈곤문화와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의 빈곤문화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빈곤은 상당부분 세습된다고 볼 수 있다. 빈곤 자체가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수입증대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고, 빈곤부모는 자손에 대한 재투자의 부족으로 빈곤을 세습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50)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고 해서 빈곤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나 사회사업은 그 전문직의 특성상 빈곤세습의 고리를 끊는데 노력하여 왔다.

<그림 1>은 Zastrow가 분석한 빈곤주기가 세대간에 전승되는 도식이다51). 이 도식은 빈곤층의 자녀가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성장하다 학교에 흥미를 잃고 중퇴하여, 저소득의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 일을 하며, 일찍 결혼하거나 임신을 함으로써 또 다시 가난한 부모가 되고 그들의 문제 중 많은 부분이 다음 세대에서도 반복되는 빈곤의 순환주기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빈곤주기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원조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역할은 사회복지사가 적절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기의 세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림 2>의 1-4단계 내에서 빈곤의 세습고리를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성인들보다는 자라나는 자녀의 교육과 사회 보호를 통해 빈곤의 세습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52) 이러한 작업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자원연계의 방법은 아동들이 있는 빈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생계보조를 위한 프로그램,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학교와 사회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고 있다.53)

49) 황미영(1990), "도시빈민의 지역사회조직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p.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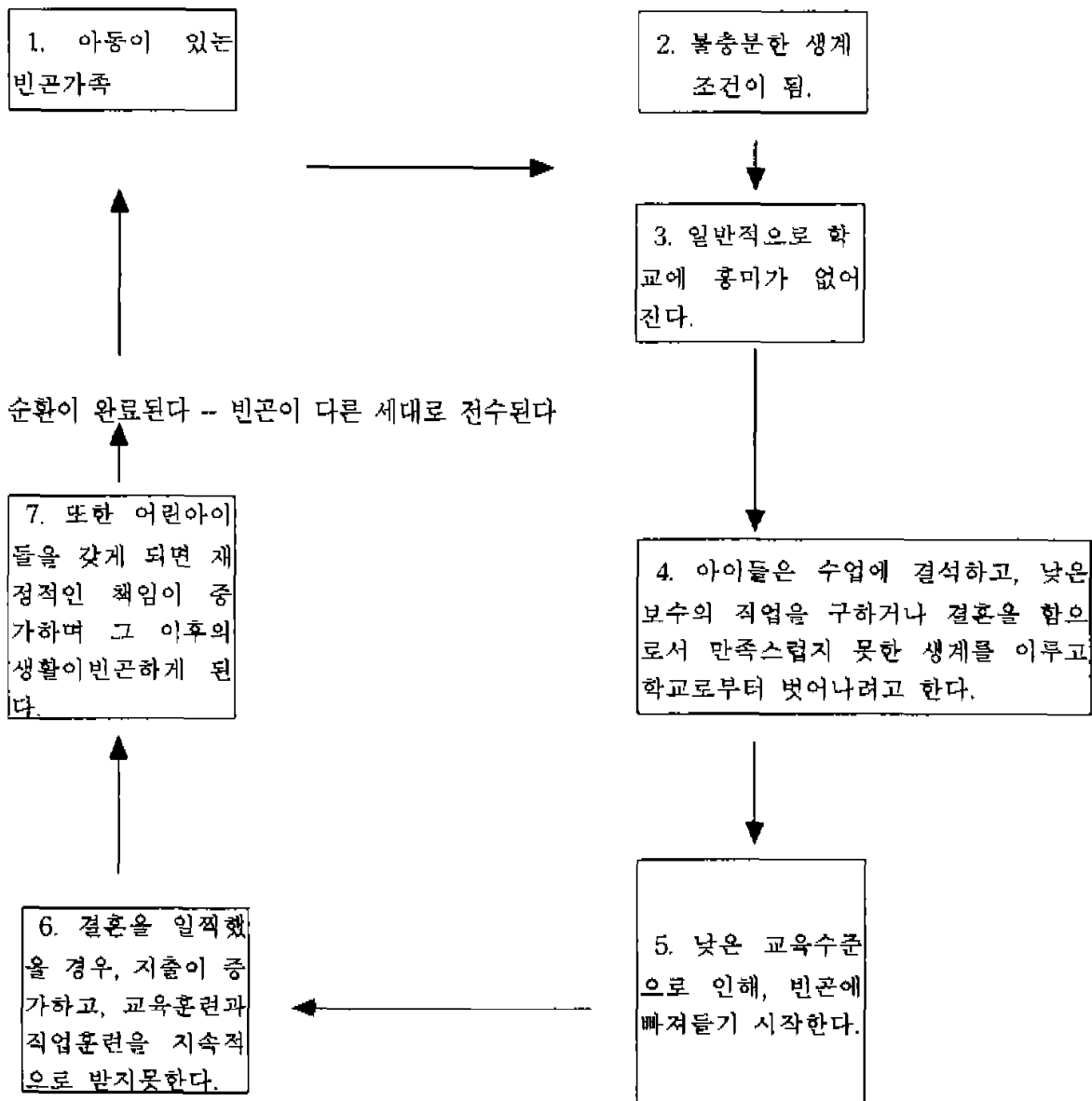
50) 박순일, 「전계서」, p. 126.

51) C. Zastrow, Op. cit., p. 94.

52) 조홍식(1996), "빈곤세습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관과 정부의 역할", 제 6회 전국사회복지관세미나 자료집, 한국사회복지관협회, p. 19.

53)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미 다른 논문들에서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어서 참고문헌의 제시로 대치하기로 한

<그림 2> 빈곤주기



3. 심리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사업 실천방법의 모색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한국 빈민들의 심리적 특성은宿命론, 절망, 무기력, 단념, 소외감 등이

다. 조홍식(1996), "빈곤세습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관과 정부의 역할", 제 6회 전국사회복지관세미나 자료집, 한국사회복지관협회, p. 19-20. 노인철, 이성기 외(1995),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91-398.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⁵⁴⁾ 사회사업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사업의 기본 원리인 자기결정의 원리가 중요하듯이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 보다도 당사자인 빈민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갖고 대처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빈민들의 심리적 특성이 “지금 내형편으로 목표를 세워봐야 별 수 없다”, “마지 못해 산다” 등의 문제해결의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⁵⁵⁾ 이의 대책이 요망된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장자(enabler)’라고 볼 수 있다. 빈민들은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혼돈과 압박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무력감, 강한 운명주의적 태도, 배타적 태도 등을 보임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지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빈민이 목표를 세우고 목표달성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⁵⁶⁾

이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빈민들이 심리적으로 의욕이 저하(discouraged)되어 있다는 점이다.⁵⁷⁾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과거 그들의 다양한 실패경험들은 그들의 동기를 약화시켰다. 용기를 잃은 사람들은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활기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많은 빈민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봄으로서 자신의 약점을 더 많이 노출시키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 것보다 현재의 불행한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러한 심리상태에 있는 빈민에게 경제적·환경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변화를 유도하여도, 본인이 변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빈곤문제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기가 힘들다.

이와 같이 의욕이 저하된 빈민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격려자(encouraging person)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Lewis Losoncy는 개별화, 수용, 비심판적 태도, 감정이입, 통제된 정서관여, 신뢰, 칭찬, 믿음, 관심, 자기결정 등, 빈민을 격려하기 위한 기법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⁵⁸⁾ 한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이라고 최근에 소개되

54) 김영모(1990), 「전계서」, pp. 82-93.

55) 「상계서」, p. 92.

56) Pincus & A.Minahan, 「전계서」, p. 17.

57) C. Zastrow(1993), "Introduction to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Cole Publishing Company, p. 111.

58) Lewis Losoncy가 주장하는 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욕이 저하된 빈민들을 철저히 수용하여 준다. “나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떤 편견없이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2) 사회복지사가 비심판적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의욕이 저하된 빈민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해야하거나 가식적인 표정을 지으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의욕이 저하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어느 정도는 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감정이입을 빈민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4) 격려자는 의욕이 저하된 사람에게 그들이 노력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클라이언트가 중요하고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5) 작은 진행과정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주목하고 반응하여 준다. 예를 들어 빈민이 새 옷을 입었을 때, 상담자는 “새 옷을 입으셨군요? 그렇죠?, 정말 잘

고 있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이론은 빈민의 능력을 제고하고 의식개혁을 시키며, 대변기법과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유용한 측면을 가짐으로서 앞으로 사회사업계에서 많이 활용되어야 할 이론이라고 생각한다.⁵⁹⁾

한편 빈민의 문제를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한 H.Aponte가 주장하는 접근방법은 “환경 속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사회사업방법론의 틀을 잘 반영하여 주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사회복지사가 빈민들과 함께 해야 할 작업은 “신체(body)와 영혼(soul)”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영혼의 기능이란 빈자들에게 삶의 긍정적인 목적과 동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⁶⁰⁾ 그런데 많은 빈민들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영혼의 부재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불어 넣어 주는 작업없이 경제적인 원조를 지속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을 불어 넣는 작업은 사회사업실천에서 필수적인 작업이고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과업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 빈민과 라포를 형성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빈민들이 사회사업에 대해 인식이 없고 자신들과 신분이 다른 사회복지사를 신뢰하지 않고, 불의감(injustice), 무기력감, 그리고 분노감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와 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들과 좋은 관계에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접근이 중

어울리네요”하고 말한다. 이런 것들은 관계형성 초기에 특히 유용하다. (6) 의욕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확신하는 뜻을 전달한다. (7) 의욕이 저하된 빈민의 관심사, 생각, 위기를 극복한 행동에 대해 열정적인 찬사를 보낸다. (8) 의욕이 저하된 사람에게 동기를 심어주는 작업에는 대단히 긴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9) 의욕이 저하된 사람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능력을 진심으로 믿어 준다. (10) 빈민이 모험을 하도록 허락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11) 의욕이 저하된 사람들이 행한 노력을 강화해 주고 지지해 준다. 중요한것은 그 사람이 시도하는 것이지, 성공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삶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노력을 한다면, 희망이 있다는음을 알려 준다. (12) 의욕이 저하된 사람들을 도와서 잘못된 생각과 “나는 실패자야”와 같이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말의 부정적인 결과를 인식할수 있도록 돕는다. (13) 의욕이 저하된 사람을 동기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한다. 의욕이 저하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욕이 저하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한다는것은 이제 더 이상 빈민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격려자는 개개인의 독특성(uniqueness)과 장점들을 잘 찾아 주는 전문가이다. 빈민이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해준다. 이 작업은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모험과 변화를 선택할수 있는 용기를 강화시킨다. (15) 의욕이 저하된 사람을 도와서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16) 빈민이 사회복지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야기시킨다. 의욕이 저하된 사람이 모험을 하고, 건설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격려자는 이들을 돕기 시작해야 하며, 그들이 격려자의 도움없이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Zastrow, Op, Cit, pp. 111-112.

59) 나동석(1977), “가족개발을 통한 빈곤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1호.

Malcolm Payne(1991), "Empowerment and Advocacy", in Modern Social Work Theory, The Macmillan Press Ltd, pp. 224-234.

60) H. Aponte, 엄예선 외 공역(1995), 「빵과 영혼」, 하나의학사, p. 31.

요한데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⁶¹⁾ (1) 빈민들은 저항감, 시간의 부족, 거동불편 등의 문제로 인해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이들을 찾아나서서 도와 주어야 한다. 빈민들은 주로 밤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 빈민들과 초기의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전문적 지식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열의와 관심이다. (2) 우선적으로 빈민들에게 생활보호서비스, 결연사업, 직업보도, 부업제공, 도시락 서비스 등의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관계가 생긴 후에 영혼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임대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모복지관의 경우 개관 1년동안은 주민들의 몰이해와 위협 등으로 공포의 분위기에서 지냈으나 노인들에게 점심식사서비스를 해주고 임대 아파트 주민을 복지관의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관계가 개선되었고, 영혼에 개입할 수 있는 상담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3) 사회복지사의 노력으로 클라이언트가 변화되었고 성공한 사례를 보여 주면 빈민들이 믿고 따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사례를 모델화하여 주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유형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실과 대결하게 하여 안이한 상태를 깨고 변화하도록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4) 빈민들과는 계층이 다른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배타의식이 초기에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들과 친밀해 질 수 있는 라포 형성의 전략이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께 안마를 해드리거나 신체적인 접촉이 효과적일 수 있고, 아동들은 학교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쉽게 라포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5) 비슷한 이해관계를 지닌 자조집단을 만들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유사시에 압력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VI. 결론

본 연구는 사회사업 실천방법이 해결하고자하는 빈곤문제의 성격을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심리적 문제로 보고, “환경 속의 인간”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로 통합사회사업방법론을 기본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사업 실천방법은 사회복지사가 몸담고 있는 복지국가 순위 제 122위의 한국적 현실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에게만 부여된 권한과 능력을 갖고서는 사회구조적인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빈곤문제해결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

61) 물론 Lewis Losoncy가 지적한 방안들도 이 부분에 해당된다. 이 외에 연구자가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전문요원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방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웃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실천에서도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빈곤문제의 해결역량을 보다 강력하게 결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급진주의모델의 사회행동방법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수용하여 실천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 사회사업모델의 대안으로 자유주의적 급진주의에서 주장하는 의식화-조직화-사회행동화의 방법의 유용함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었으나 현 사회사업실천의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지역사회조직방법마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였고, 검증되지 않은 가정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그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는 방법, 기존의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는 방법, 비공식적인 지역운동과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아울러 사회사업실천 교육에 있어서 거시적 실천(macro practice)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거시적 실천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가 사회사업실천에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빈곤에 대처하려는 사회복지사는 개인, 집단, 가족만을 대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역사회조직도 해야하고, 사회행동에도 참여해야하며, 빈곤문제의 해결에 관련되는 조직의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사회사업실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직이 대상이 되는 거시적 사회사업실천의 영역도 잘 알아야 된다.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빈곤문제에 접근하는 사회사업실천에서 미시적 분야와 거시적 분야의 상호연결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James Midgley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빈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심리적 문제에 초점을 둔 전통적 모델을 채택해 실패하였는데 반해, 아프리카의 몇 개국들은 빈곤의 원인을 사회환경적 요인에서 접근한 지역사회조직사업의 방법을 통해 빈민의 생활수준을 많이 증대시키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선진국은 후진국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²⁾ 아프리카의 경험이 설혹 경제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주안점을 둔 방법이었더라도, 지금처럼 빈곤문제에 대해 무력한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실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Midgley의 지적에 새삼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빈곤문제에 대한 경제적이고 정책적 대책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빈곤문제의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가 거

62) James Midgley(1990), "International Social Work: Learning from the Third World", *Journal of Social Work*, v.35, n.4, p. 229.

의 없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도 찾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부재는 단지 논문을 쓰는 연구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연구자가 본 연구를 준비하기 위해 몇몇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과 전문요원들을 만나면서 안타깝게 느낀 점이 있었다. 그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빈민들에게 다소간의 도움을 주고 있다는 심증과 비체계화된 사례들은 갖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나름대로 수행한 빈곤해결의 노력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 하나는 빈곤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사업실천의 구체적 지침이 될만한 교재나 연구가 거의 없고, 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어서 현장에서 빈곤문제에 접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회사업실천 분야의 석박사를 획득한 사회복지사들이 빈곤문제에 관심이 적고, 연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의 대부분이 빈곤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 전통적 사회사업모델의 한 분파인 임상사회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에 사회사업실천방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상사회사업의 분야에서도 빈곤문제에 관심을 두고 어떤 사회사업실천 기법이 빈곤문제를 보다 잘 해결해주고 빈곤세습을 막을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임상실천과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